

2015. 10. 26. ~ 11. 1. 주간

57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 10월 대파, 딸기 재배 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신안 함초, 50만불 수출계약 성사

aT,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 “압(YAFF)”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한우!” 전국한우경진 대회에서 우수성 확인

국산 '거베라' 새 품종 평가받아

밭 농업기계화, 콩 재배 100% 기계화 길 열어

6년근 인삼, 겨울나기 준비 시작해야

정책동향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뭄피해보험금 최고수준 지급 추정”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해외 농업정보

TPP 타결에 따른 일본 쌀 시장 전망

미국, 쇠고기 소비 감소 추세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2015.10.26.)



전라남도
Jeolla 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8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12도, 최고기온: 17~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9

- 대파, 10~12월 정식의향 전년 대비 4% 증가
- 딸기, 정식면적 작년보다 1% 증가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10

▶ 엽근채소 : 배추

- 배 추 :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출하량 증가와 추석 이후 소비 감소로 평년보다 낮은 4,000~5,000원/10kg으로 전망

▶ 과 채 : 토마토 · 애호박 · 청양계 풋고추

- 토마토 :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18,000~21,000원/10kg으로 전망
- 애호박 : 작년보다 낮은 9,000~11,000원/20개로 전망
- 청양계 풋고추 : 작년보다 낮은 20,000~25,000원/10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11

- ▶ 인삼 세척기술 보급 및 포장재 개선사업 추진
- ▶ 함평군 다섯 번째 국회 함평천지한우 시식행사 성료
- ▶ 쌀귀리, 파종시기만 잘 지켜도 절반은 성공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15

- ▶ 신안 함초, 50만불 수출계약 성사
- ▶ aT, 「지구촌 리포트」로 농식품 수출정보 빠르게 알린다.
- ▶ aT,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얹(YAFF)”!

❀ 농업기술 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19

- ▶ “전남한우!” 전국한우경진 대회에서 우수성 확인
- ▶ 몸에 좋은 건강 먹거리
- ▶ 국산 ‘거베라’ 새 품종 평가받아
- ▶ 밭 농업기계화, 콩 재배 100% 기계화 길 열어
- ▶ 와인 특허기술, 기술이전으로 와이너리 현장에서 날개 단다.
- ▶ 과수원 가을거름 반드시 필요한 이유!
- ▶ 호접란 수입종묘 대체 신품종 보급한다.
- ▶ 6년근 인삼, 겨울나기 준비 시작해야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30

- ▶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뭄피해 보험금 최고수준 지급 추정”
- ▶ 도·농 연계 협력으로 도시 일자리 부족과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지원
- ▶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37

- ▶ TPP 타결에 따른 일본 쌀 시장 전망
- ▶ 미국, 쇠고기 소비 감소 추세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0. 26.(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기술 투매와 달러 상승으로 소폭 하락 마감함. 더불어 달러화 강세와 흑해 및 남미 지역의 값 싼 밀 공급으로 수출 경쟁력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옥수수 선물가격은 다른 곡물 가격의 하락세 속에서 11월 옵션 연장과 투자자들의 숏커버링 전략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함. 하지만 달러화 강세로 세계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을 많이 잃은 상태이며 수확 진행 상태는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전망됨.
 - 대두 선물가격은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와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중국의 구매력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함.

▶ 달달함 따라 떠나는 10월 과수축제

- 축 제 명 : 2015 제14회 창원단감축제
- 기 간 : 2015. 10. 31.~11. 1.
- 장 소 : 경남 창원시 북면 온천 관광단지
- 문 의 처 : 055-255-3995

- 축 제 명 : 2015 충주 농산물한마당 축제
- 기 간 : 2015. 10. 31.~11. 1.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 주요행사 : 농악대 퍼포먼스, 서커스 공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노래자랑 등
- 문 의 처 : 충주사과발전회 043-850-5721

- 축 제 명 : 화순고인들 문화축제
- 기 간 : 2015. 10. 31.~11. 1.
- 장 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 주요행사 : 고인들 끝기 한마당 행사, 고인돌마을 제례의식, 선사 생활 체험장 운영, 주민참여 공연전시, 사생대회, 사진전시 등
- 문 의 처 : 도곡면 061-379-5070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안내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0. 2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26)	1주일전 (10/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7,200	38,000	39,800	40,600	40,467	↓8.4	↓8.1
	콩(백태)	35kg	140,000	137,000	137,000	137,250	202,100	↑2.0	↓30.7
	고구마(밤)	10kg	21,800	22,200	22,400	19,850	21,977	↑9.8	↓0.8
	감자(수미)	20kg	24,600	24,800	24,800	20,000	25,083	↑23.0	↓1.9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390	400	663	465	603	↓16.1	↓35.3
	양배추	10kg	5,200	4,900	6,475	4,600	7,452	↑13.0	↓30.2
	오이(다다기계통)	10kg	13,667	16,333	20,083	17,389	19,306	↓21.4	↓29.2
	애호박	8kg	13,000	15,000	12,450	13,500	18,063	↓3.7	↓28.0
	토마토	10kg	21,000	21,400	27,700	24,150	34,847	↓13.0	↓39.7
	무(고랭지)	20kg	8,200	8,300	10,050	10,850	13,297	↓24.4	↓38.3
	당근	20kg	29,200	30,400	34,800	31,350	42,310	↓6.9	↓31.0
	건고추(화건)	60kg	816,000	816,000	830,000	863,000	940,333	↓5.4	↓13.2
	풋고추	10kg	19,600	19,600	27,650	38,700	41,593	↓49.4	↓52.9
	마늘(난지)	10kg	55,000	53,000	47,000	34,200	36,633	↑60.8	↑50.1
	양파	20kg	29,000	28,200	28,000	10,400	18,013	↑178.8	↑61.0
	대파	1kg	1,580	1,620	1,965	1,140	1,641	↑38.6	↓3.7
	파프리카	5kg	13,800	13,600	24,100	29,250	34,563	↓52.8	↓60.1
	방울토마토	5kg	10,000	11,200	14,200	11,450	21,860	↓12.7	↓54.3
	수박	1개	7,500	9,000	12,850	7,600	9,367	↓1.3	↓19.9
과 일 류	사과(홍로)	15kg	28,000	29,000	40,767	-	33,004	↑ -	↓15.2
	배(신고)	15kg	37,600	39,200	43,800	29,500	34,413	↑27.5	↑9.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26)	1주일전 (10/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0,000	520,000	547,767	↑1.9	↓3.2
	들깨	45kg	418,000	422,000	422,000	410,000	327,333	↑2.0	↑27.7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9,150	7,000	8,170	↑17.1	↑0.4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40	7,890	7,556	6,894	6,570	↑12.3	↑17.8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48	1,994	1,990	1,832	1,628	↑6.3	↑19.7
	닭고기	1kg	5,024	5,357	4,659	5,483	5,614	↓8.4	↓10.5
	계란(특란)	30개	5,674	5,471	5,610	5,808	5,496	↓2.3	↑3.2
	우유	1리터	2,547	2,547	2,547	2,547	2,369	↑0.0	↑7.5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0. 26.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6,020 천원	5,952 천원	4,651 천원	↑ 1.1	↑ 29.4
	거세	6,689 "	7,026 "	5,460 "	↓ 4.8	↑ 22.5
송아지 (6~7월)	암	2,668 "	2,661 "	1,942 "	↑ 0.3	↑ 37.4
	수	3,263 "	3,326 "	2,512 "	↓ 1.9	↑ 29.9
육우(600Kg)		3,335 "	3,525 "	3,258 "	↓ 5.4	↑ 2.4
젖소수송아지(7일령)		316 "	314 "	26 "	↑ 0.6	↑1115.4
돼지(110kg)		319 "	324 "	372 "	↓ 1.5	↓ 14.2
육계(원/kg)		1,331 원	1,428 원	1,706 원	↓ 6.8	↓ 22.0
계란(원/특란10개)		1,153 "	1,176 "	1,308 "	↓ 2.0	↓ 11.9
오리(원/kg)		2,166 "	2,166 "	2,16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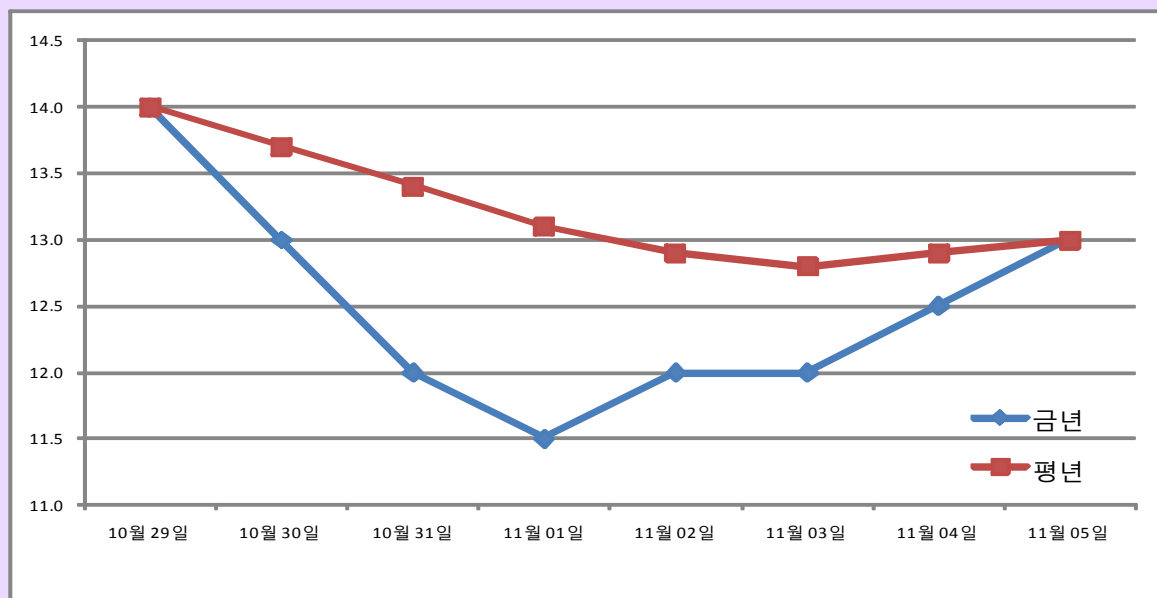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2.5	13.2	-0.7	16.1	18.4	-2.3	8.9	9.1	-0.5	1.5
10. 29.(목)	14	14	0	17	19.4	-2.4	11	9.8	-1.2	1.8
10. 30.(금)	13	13.7	-0.7	16	18.8	-2.8	10	9.7	-0.3	2.1
10. 31.(토)	12	13.4	-1.4	15	18.5	-3.5	9	9.4	0.4	1.9
11. 1.(일)	11.5	13.1	-1.6	15	18.3	-3.3	8	9	-1	1.4
11. 2.(월)	12	12.9	-0.9	16	18	-2	8	8.7	-0.7	1.2
11. 3.(화)	12	12.8	-0.8	16	17.9	-1.9	8	8.7	-0.7	1.1
11. 4.(수)	12.5	12.9	-0.4	17	18.1	-1.1	8	8.6	-0.6	1.3
11. 5.(목)	13	13	0	17	18.2	-1.2	9	8.8	0.2	1.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대파·딸기 재배 동향

□ 대파, 10~12월 정식의향 전년 대비 4% 증가

- 금년 10~12월 대파 정식의향(내년 3~6월 출하분)은 금년 대파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기지역 정식의향은 금년 봄대파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시설대파 정식을 늘리려는 농가가 많아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딸기, 정식면적 작년보다 1% 증가

- 2015/2016년산 딸기 정식면적은 전년산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남 밀양, 충남 공주, 경기 이천에서는 안정적인 딸기 가격으로 농가의 재배의향이 높으며, 충남 논산에서는 귀농인구의 증가로 정식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남 진주, 경북 고령에서는 수출단지와 주산단지 확대로 정식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식 시기별로는 8월 정식면적이 전년산보다 3% 감소한 반면, 9월에는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에 조기정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이 많아 올해는 9월로 정식시기를 되돌렸으며,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8월의 고온으로 정식을 9월로 늦춘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 정식 후 현재까지의 생육상황은 양호하며, 정식면적이 확대된데다 수량성 높은 고설식 면적도 증가하여 기상이변이 없는 한, 2016년산 딸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 추

○ (배 추)

- 10월 배추 도매가격은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출하량 증가와 추석 이후 소비감소로 평년보다 낮은 4,000~5,000원/10kg으로 전망된다.

과 채 : 토마토 · 애호박 · 청양계 풋고추

○ (토마토)

- 10월 가락시장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18,000~21,000원/상품 10kg으로 전망된다

○ (애호박)

- 10월 가락시장 평균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9,000~11,000원/20개로 전망된다. 이는 출하량이 작년과 비슷하겠으나, 추석 이후 소비가 다소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청양계 풋고추)

- 10월 가락시장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20,000~25,000원/상품 10kg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인삼 세척기술 보급 및 포장재 개선사업 추진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올해 사업비 80,000천원을 투입하여 신개념의 수삼세척기술 및 기능성 포장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인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해남군 인삼재배면적은 70여 농가 160ha로 주로 6년근이 재배되고 있는데 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된 판로를 갖추고 있으나, 매년 계약 면적을 줄여나가고 있어, 4년근 수삼의 소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삼은 특성상 세척이 매우 어려워 품질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세척기술과 기능성 포장재 개선사업을 통하여 수삼의 품질 향상, 유통기한 증대 등으로 인하여 수삼의 소비확대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 인삼연구회 대표(천희구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수삼 전용 고압 분사 세척기는 잔뿌리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뿌리사이에 흙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세척되어 수삼 품질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삼전용 포장재는 수삼이 포장 안에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이 많은 기능성 돌가루를 플라스틱에 코팅하여 만들어진 포장재로 수삼의 수분손실과 부패율을 기존용기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절감시켰으며 신선도 유지기간도 기존보다 10~15일 정도 더 유지 할 수 있다.

*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 함평군 다섯 번째 국회 함평천지한우 시식행사 성료

- 국회의원, 향우, 시민 등 1500여 명 참석해 성황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0일 국회 후생복지관에서 다섯 번째 함평천지한우 시식 및 할인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 이개호 국회의원과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축협(조합장 임희구)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유성엽, 천정배, 이정현 의원 등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재경함평군향우회원, 서울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함평군은 한우고기 소비촉진으로 한우농가를 돕고,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회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할인판매 행사에는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등심, 안심, 국거리 등을 구매했다.
- 한우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함평나비쌀 500g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함평천지한우사골 1kg을 선물로 증정했다.
- 오후 2시부터 열린 시식행사에는 국회의원, 구청장, 향우,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 안병호 군수는 “맛 좋고 품질이 뛰어난 함평천지한우를 서울시민에게 소개하고,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매년 국회에서 시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맛있는 한우 많이 드시고 한우농가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기념식 후 열린 시식행사에서는 1+이상 구이용 등심과 육회용 고기가 참석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 함평천지한우와 농·특산물을 싣고 간 이동판매차량에는 구매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 시식회가 끝난 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함평천지한우, 복분자 와인인 레드마운틴, 함평나비쌀 등 푸짐한 선물도 지급했다.

* 출처 : 함평군

■ 쌀귀리, 파종시기만 잘 지켜도 절반은 성공

- 쌀귀리 10월 중·하순에 파종해야 좋은 품질 얻어 -
- 전국 최대 면적의 쌀귀리를 재배하고 있는 전남 강진군은 고품질 쌀귀리 생산을 위한 적기 파종과 배수 관리를 당부했다.
- 강진은 기온이 높아 쌀귀리 파종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월동 전 5~6매의 잎을 확보하는 것이 품질향상과 다수확에 직결되므로 10월 중·하순에 파종해야 하며, 너무 일찍 파종하면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고 늦게 파종할 경우 분얼이 늦어져 이삭수가 적어져 수확량이 감소하므로 적기 파종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파종량은 밭에 줄뿌림 할때는 9kg/10a, 논에 줄뿌림 할때는 10kg, 논에 흩어 뿌릴때는 13kg을 뿌리는 것이 적정하나 파종시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농가의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파종량을 30% 늘리는 것이 좋고 파종깊이는 3cm내외를 얇게 하면 종자의 출현률을 높일 수 있다.
- 밀거름은 보리전용복합비료로 13포/ha를 기준으로 하되 재배지 토양상태에 따라 조절해 뿌려주며 파종 후 3일 이내에 제초제를 3kg/10a을 뿌리되 토양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겨울을 난 후에는 중기제초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 쌀귀리는 보리재배 기술과 흡사하며 물에 의해 습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배수골을 깊게 파고 물길을 내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부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 1kg에 카보람분제 2.5g 비율로 소독하여 파종해야 한다.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귀리는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도시소비자들로부터 건강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며 “보리에 비해 1.8배 소득이 높은 고소득 작물로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2010년도부터 곡물유통업체와 식량작물 계약재배를 시작해 찰벼, 흑미, 메벼 등 8품목 32,000톤 계약했으며 쌀귀리는 2012년도에 104ha로 시작하였으나 수익성이 높아 2015년도에 276ha로 265% 증가했고, 2016년도에는 460ha로 확대될 전망이다.

* 출처 : 강진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신안 함초, 50만불 수출계약 성사

- 신안군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15년 10월 15일부터 개최한 국제 농업박람회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함초를 일본, 미국, 두바이 등 3개국에 50만불 수출계약의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수출은 (주)다사랑에서 함초분말과 환, 발효제품을 비롯하여 함초김과 함초소금 등 6종을 일본과 미국, 두바이와 50만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수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 (주)다사랑은 함초사업의 선두기업으로서 함초 재배 방법과 유용성 연구, 상품개발과 함초 알리기 등 함초사업을 이끌어 오며 함초소금 제조방법, 함초 발효, 함초김치 등 20여 종의 발명 특허를 보유한 함초 전문기업이다.
- 미네랄의 보고이자 개펄의 산삼이라 불리는 함초는 다량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칼륨의 경우 감자의 3배, 철분은 김이나 다시마의 10배에 이른다.
- 또한 함초에는 식이섬유,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플로보노이드, 사포닌 등 수십 종의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과 음식조리의 향신료, 제과 제빵 등 식품제조 첨가제, 화장품과 의약 외품 등 그 활용성이 매우 다양한 생물자원이다.

- 따라서 함초를 섭취하면 몸 안의 독소를 줄여주고 숙변제거와 변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현대인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미네랄 보충은 물론 면역력 증강과 피부미용 등에도 유용한 웰빙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러한 함초를 육성하기 위하여 함초 생산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안군은 함초를 특용작물로 지정하여 함초 재배와 가공시설,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함초 재배농가에 대한 유기농재배 기술교육과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세척과 건조, 분쇄와 제환 등 함초공장과 함초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식품 및 함초소금, 함초김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신안군은 한·중 자유 무역 협정에 발맞추어 2015년 3월 중국 북경에 천일염, 함초 등 신안 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중국수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일본과 미국 등에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출처 : 신안군

■ aT, 「지구촌 리포트」로 농식품 수출정보 빠르게 알린다.

– aT 해외지사에서 분석한 수출 이슈와 현안사항을 실시간 전파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일본, 미국 등 aT 해외지사가 소재하는 각 국의 주요 수출이슈 및 현안사항을 모아 농식품 「지구촌 리포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간되는 지구촌 리포트는 현지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농식품의 유통과 소비자 동향, 현지 수입통관·검역·라벨링 등 제도 변경사항, 현지 대형유통업체·중소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업계 동향은 물론, 할랄·코셔·유기가공농식품 등 인증 관련사항, FTA체결에 따른 양허내용과 협정세율 등을 수출업체에 실시간으로 신속히 전파하게 된다.
- 「지구촌 리포트」는 리플렛 형태(pdf 파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 정보 홈페이지(www.kati.net) 내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MS, 이메일을 통해서도 수출업체에 전파될 예정이다.
- aT 담당자는 “향후에도 각국의 농업정책 분석을 통해 유통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YAFF(Young Agri-Food Fellowship ; 대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 대학생 회원과 해외 모니터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aT,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얹(YAFF)”!

– aT,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한국외식업협회와 일자리 창출 협약체결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가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해소 및 일자리 창출정책에 부응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대한민국 농식품인재 네트워크 플랫폼인 얹(YAFF)의 역할을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 10.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최대 소비지거점인 “코타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된 글로벌 K-Food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B2C)에서 인도네시아

한국유학생과 현지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자카르타 압(YAFF) 회원들이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 현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 aT는 해외기관과는 처음으로, 현지의 한국 외식 업체들로 구성된 인니 한국외식업협회(Korean restaurant association in Indonesia)와 “Good Job, Good people(좋은 일자리, 우수한 인재!)”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한국 청년학생들의 글로벌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행사에 참여한 aT 대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 압(YAFF : Young Agri-Food Fellowship) 자카르타 회원인 베비올라 학생(자카르타 UPH대학교 경영학부 재학)은 인터뷰를 통해 “한류와 더불어 자카르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K-Food를 인도네시아에 알리는데 YAFF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aT 김재수 사장은 “aT가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하나인 압(YAFF)의 글로벌 커뮤니티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보다 큰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해외 주요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글로벌 일자리 확대를 위한 「Good Job, Good People」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aT는 청년의 식품관련 취업·창업 장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젊은 아이디어 발굴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자 신개념의 농식품 인재 네트워크 플랫폼인 『압, YAFF』을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전남한우!” 전국한우경진 대회에서 우수성 확인

- 처녀우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

- 전남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경기도 안성 농협팜랜드에서 개최된 2015년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무안군 조정길씨(54세)가 처녀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 출품한우는 각 시도에서 사육되는 암소 중 2세대 이상 혈통등록우로 유전능력평가와 질병검사, 친자확인 등을 거친 우수한 개체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체측검사, 외모심사,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선발했다.
- 권두석 축산과장은 “한우개량과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생산된 전남한우의 우수성이 확인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착한 가격에 공급하여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한우개량,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를 낮춰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전남도는 2016년부터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연구소, 한우개량사업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한우개량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몸에 좋은 건강 먹거리

- 건강증 막아주는 천마 아연·셀레늄 풍부 호두 -

- 머리를 좋게 유지하려면 대상을 기억하고 논리적 학습을 통한 뇌 활동의 지속적인 훈련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중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시켜 뇌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 뇌건강과 영양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찾아 먹는 것이 뇌활성을 강화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을 주변에서 찾아보면 첫번째 천마의 가스트로딘이란 성분은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피를 맑게 하며,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동맥경화 억제에 도움을 주고, 혈액에 쌓인 노폐물을 없애고, 건망증, 기억력 감퇴 치매예방, 뇌질환을 막을 수 있어 좋다.
- 두번째 계란과 닭고기는 뇌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좋은 식품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며, 먹고 나면 포만감이 있어 배고픔을 없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
- 세번째 비타민 C가 많은 귤이나 과일은 단백질 흡수를 돕고 스트레스를 없앤다.オート밀은 섬유질과 탄수화물이 많아서 뇌에 에너지 공급을 지원해 준다.
- 네번째 고등어, 연어, 청어 등의 생선은 뇌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지방산이 풍부하고 몸속에 흡수되면 DHA로 변하여 뇌기능을 강화한다. 아마씨유의 오메가3 성분은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없애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기능을 높여 준다. 영양과 당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뇌 세포벽은 오메가 3성분을 섭취했을 때 활성능력이 높아진다.

- 다섯번째 호두 등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인지질을 구성하고 뇌신경세포 돌기의 성장과 신경체계를 좋게 한다. 바나나와 호두를 같이 먹으면 뇌 활성화와 에너지 공급에도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견과류에는 비타민 B 복합물질과 동, 철, 망간, 아연, 칼슘, 셀레늄 등 영양분이 많다.
- 여섯번째 붉은 고기류인 소고기와 송아지고기, 양고기 등은 두뇌 활동을 돕는 철분이 풍부하여,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산소공급을 도와 두뇌 활성을 좋게 한다. 또한 소화가 잘되는 식품으로 위의 부담을 줄여 운동이 부족한 학생에게도 좋다.
- 일곱번째 해조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혈액을 구성하는 요오드성분이 많아 피를 맑게 하므로 시험 전에 해조류 국을 먹고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좋다.
- 여덟번째 녹차와 커피는 항산화 활성이 있고, 주의력을 높이는 식품이나, 효과가 짧고 많이 마시면 정신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 초조, 강박관념 등은 뇌기능을 약화하고, 인스턴트식품의 인산염은 체내 아연을 파괴하여 뇌세포 활성을 저하시키고, 담배와 음주도 노인성 치매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자연에 가까이하는 것이 뇌를 좋게 하는 방법이다.

* 출처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국산 '거베라' 새 품종 평가받아

- 23일 경남 밀양 농가에서 거베라 현장평가회 열려 -

- 화훼 농가의 종묘비 부담과 해외 로열티(사용료) 문제를 해결할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의 국산 거베라 새 품종을 개발해 첫 선을 보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산 거베라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23일 경남 밀양 재배 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연다.
- 이 자리에는 거베라 재배 농가, 유통업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거베라 새 품종의 보급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거베라 17계통과 ‘핑크멜로디’ 등 6품종을 함께 소개한다.
- 올해 새로 개발해 첫 선을 보이는 ‘원교B3-56호’는 꽃이 큰 주홍색 반겹꽃 계통으로 꽃대가 길고 꽃 모양이 안정돼 있다. 또한, 수량이 많아 재배 농가와 유통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진한 노란색의 반겹꽃 ‘원교B3-57호’는 꽃이 크고 꽃 색도 밝고 선명하다. 초기 생육속도가 빨라 활착률이 좋다. 밝은 자주색 반겹꽃 ‘원교B3-58호’는 중소형 계통으로 꽃 모양이 안정되고 수량이 많아 꽃꽂이용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번에는 꽃이 큰 계통의 분홍색 반겹꽃 ‘핑크멜로디’와 주황색 반겹꽃 ‘썬업’ 등 기존 국산 품종도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 현재 국내에는 네덜란드 등 유럽의 육종회사로부터 연간 100여 품종 70만 주 정도의 거베라 종묘가 수입되고 있다.
- 수입 종묘 가격은 주당 1,800원~2,400원으로 국내산 종묘 가격인 1,200원에 비해 2배가량 비싸며, 재배 농가가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사용료)도 연간 4억여 원에 달한다.

- 농촌진흥청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베라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1991년부터 품종 육성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39품종의 거베라 품종을 육성·보급하고 있다.
- 그 결과, 2002년 이전 0%에 가까웠던 국산 품종 점유율을 2014년에는 18%까지 끌어올렸으며 2015년에는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 박종택 연구사는 “국내 재배 환경에 알맞은 우리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보급해 외국에 지불하는 로열티(사용료)는 줄이고 농가의 종묘비 부담은 덜어 재배 농가가 믿을 수 있는 품종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밭 농업기계화, 콩 재배 100% 기계화 길 열어

- 농촌진흥청, 21일 전북 순창서 논 콩 생력기계화 기술 연사회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생력기계화를 통해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1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들녘에서 논 콩 생력기계화 기술 연사회를 열었다.
- * 장소 : 전북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753(구산마을)
- 행정·연구·지도·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관과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사회는 콩 생력 재배 기술과 사례 설명, 기계화 표준 재배 양식에 맞춘 파종부터 수확, 정선까지 모든 과정의 생력기계화 기술을 연시하고 관련 기계를 전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밭작물의 경우 경사지 재배가 많고 영농 규모가 영세해 기계화 작업이 어려워 자급률도 낮다.
- 기계화율은 49%로 벼농사에 비해 낮으며, 특히 파종·이식과 수확 작업은 기계화율이 15.1%, 21% 수준이다.

○ 반면, 콩 등 기타 양곡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 쌀 소비량(1인당/kg) : ('11) 71.2→ ('12) 68.8→ ('13) 67.2→ ('14) 65.1

* 기타 양곡 소비량(1인당/kg) : ('11) 7.4→ ('12) 7.3→ ('13) 8.1→ ('14) 8.7

○ 이번 연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판 중인 콩 파종기, 중경제초기, 수확기 등을 중심으로 최적 작업 조합을 선보였다.

○ 중산간지 논에 콩 재배를 규모화하고 전 과정 기계화 모델을 적용하면 기존 대비 노력은 91%, 비용은 83% 줄일 수 있다.

* 농가 선호 파종 양식(수확기) : 둥근두둑 1줄(전용콤바인), 평두둑 2줄(범용콤바인)

○ 또한, 휴립(두둑성형), 비닐 피복, 파종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파종 기술과 조류(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식 재배 기술을 선보인다. 아울러, 수확을 하는 콩 콤바인과 정선 선별기, 이식기 연시와 중경제초기도 전시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완성한 콩의 전 과정 기계화 기술에 이어 연차별로 밭농업 기계화 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밭농업의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식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매뉴얼 보급 : ('15)콩 → ('16) 고구마 → ('17) 조·기장·수수·팥 → ('18) 감자

* 밭 작물기계화 시범 확대 : ('16) 10 → ('17) 20 → ('18) 30 → ('19) 40개소

* 출처 : 농촌진흥청

■ 와인 특허기술, 기술이전으로 와이너리 현장에서 날개 단다.

－ 와인연구소, 2개 특허기술 5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최근 개발한 2개 와인관련 특허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국내 5개 업체와 10월 21일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회의실에서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기술 이전된 특허기술은 아로니아 함유 감와인과 와인코팅 쌀과자 제조방법 등이다.
- 아로니아 함유 감와인 특허를 기술이전 받는 곳은 영동의 4개 와이너리로 상촌농원(산너울와인), 용화농원(천고와인), 백마산농장(백마산와인), 갈기산포도농원(갈기산와인) 등이다. 이들 와이너리들은 이전 받은 기술로 기존 와인과 접목한 지역특산 와인을 만들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 영동은 주로 캠벨얼리 포도를 이용하여 와인을 제조하고 있으나, 포도원의 위치, 그해의 기후나 환경 등에 따라 집집마다 다른 향과 맛을 지닌 와인을 생산한다. 같은 기술을 이전받아도 와이너리별로 차별화된 와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 와인코팅 쌀과자를 기술이전 받은 와인코리아는 매년 2만 5천명 정도의 체험·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와인코팅 쌀과자를 체험 상품이나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 와인연구소 윤향식 박사는“기술 이전한 특허 기술의 현장실용화 뿐만 아니라, 와이너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국산 와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과수원 가을거름 반드시 필요한 이유!

- 기상재해 없어 나무 당 과실 생산량에 비례하여 양분 소모도 많아 -
- 금년 과일 수확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양분 소모가 많았던 과수원 토양의 지력 회복을 위한 퇴비 살포 등 가을철 과수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수확이 끝난 배 과수원은 다음해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가을거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수원 상태에 따른 알맞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과실 수확이 끝난 배나무는 잎의 기능이 떨어지고 가을철 뿌리 자람이 불량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품질 과실을 키워낼 수 있는 저장양분 축적을 위해서는 나무의 기능 증진을 위해 가을거름을 주어야 한다. 배 수확을 마친 과수원에 가을거름을 주게 되면 나뭇잎의 광합성작용이 활발해져 탄수화물 축적이 많아지고, 가을 뿌리 발생이 많아져 내년 뿌리 발육이 빨라진다. 특히 내년에 필 꽃눈을 충실하게 하여 품질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가을거름 주는 시기는 가능하면 10월 중에 완료해야 한다.
- 과수원 가을거름은 배 품종별로 주는 시기가 다르다. 조생종은 수확 직후에 주는 것이 좋고, 중만생종 배 과수원일 경우는 수확 30일 전부터 수확 후반기에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비료를 수확 전 너무 일찍 주게 되면 과실 착색이 불량하고, 당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비료 주는 양은 과원의 연간 질소질비료 사용량의 20% 정도인 10a당 요소 9.3kg 정도로 하되, 나무 세력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많이 줄 경우 겨울철 동해와 동고병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주는 방법은 비가 올 때 질소질비료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으며,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비료를 뿌려 준 후 충분한 양의 물을 주어야 한다.

- 올해 경남지방은 과수원이 큰 기상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 숙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무 당 생산량이 평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양분 소모가 많았던 만큼 가을거름은 반드시 주어서 뿌리 활력을 높여야 안전한 월동과 이듬해 회복이 빨라진다. 주의할 점은 가을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월동 중 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세에 따라 조절해서 주는 것이 좋다.

*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호접란 수입종묘 대체 신품종 보급한다.

- 도 농기원 개발 호접란, ‘베이비핑크’·‘큐티’ 등 농가보급 확대 -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대부분 외국산 종묘에 의존하는 호접란의 대체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다.
- 도 농기원은 호접란 신품종 ‘베이비핑크’·‘큐티’가 조직배양업체에서 증식과정을 거쳐 도내 농가보급이 임박했다고 20일 밝혔다.
- 도 농기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호접란(팔레놉시스) 재배면적은 28.8ha로 전국의 66%를 점유하는 경기도 특화작목이다. 특히 호접란은 난류 중에서도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며 분화류 전체 생산액의 28%, 화훼 생산액의 9.5%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작목이다.
- 그러나 현재 수출 및 재배품종의 대부분이 외국산 종묘에 의존하고 있으며 로열티 지불액은 연간 27억 원으로 추정된다.
- 도 농기원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호접란 신품종을 증식 및 보급 중이다.
- ‘베이비핑크’ 신품종은 2010년도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등록된 것으로 분홍색 꽃잎과 꽃 중앙이 적자주색을 띠고 있어 관상가치가 높다.

‘큐티’는 2012년에 육성한 것으로 흰색의 꽃과 분홍색 농담(그러데이션)이 아름답고 꽃잎이 두터워 개화기간이 길다.

- 이와 관련, 도 농기원은 10월 21일 남양주와 충북 음성 재배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열고 국내 종묘생산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종묘생산 및 보급체계 안정화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난류 신품종 농가 증식 실증시험을 통해 신품종의 증식효율, 기내생육, 변이율 등을 평가해 농가 보급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호접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1만 주 이상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 6년근 인삼, 겨울나기 준비 시작해야

- 고품질 6년근 홍삼 원료삼 생산 위해 겨울나기 준비 당부 -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올 겨울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 춥고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삼농가에 월동 대비를 당부했다.
- 도 농기원은 올해 슈퍼 엘니뇨에 대비한 인삼밭 월동준비로 해가림 자재를 미리 걷어 폭설 피해를 막고, 인삼밭 고랑에 있는 흙으로 두둑을 2cm 정도 덮으면 이듬해 인삼이 늦게 출아하여 저온에 의한 냉해 피해와 가뭄에 의한 염류 피해를 함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아울러 잣빛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배수로를 정비해 적절한 토양

수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인삼은 겨울철 영하 20~30도의 저온에서도 얼지 않고 잘 견디지만, 눈이 많이 와 토양수분이 과다하면 이른 봄에 서릿발에 의해 뇌두가 손상되고 이 부위에 잿빛곰팡이병이 쉽게 발생해 수량이 감소한다.

-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인삼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편, 엘니뇨는 페루 연안에 해당하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북위 5도~남위 5도, 서경 120~170도)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 0.5도 이상 상승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이다. 특히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슈퍼 엘니뇨’라고 하며,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에는 홍수와 폭우, 가뭄, 냉해, 이상고온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뭄피해 보험금 최고수준 지급 추정”

- 재해복구비 13억원, 가뭄피해 보험금 36억원 -

□ 농식품부는 금년 인천·충남지역 강수율이 전년 대비 30~40% 수준에 그치는 등 봄부터 전국적으로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는 1,337백만원(국비 936, 지방비 401)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10.21) 하였다.

□ 충남·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추정치 : 1,625농가, 4,644ha)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 후 보험금 (추정치 : 3,573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는 재해보험 제도 도입('01) 이후 가뭄피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금년의 극심한 가뭄피해 상황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뭄피해로 인한 재해보험 사고접수 현황(10/21 기준)>

(단위: 호,ha,백만원)

시도	피해농가수	피해면적	추정보험금	비고
경기	38	154	32	
강원	11	33	10	

충남	661	3,310	2,655	
전북	47	47	55	
전남	294	319	197	
경북	11	11	8	
경남	13	6	7	
인천	547	761	598	
광주	3	3	11	
합계	1,625	4,644	3,573	

* 가뭄피해지역에 대부분 흰잎마름병 증세가 동반 발생되어 흰잎마름병 사고도 포함

- 또한,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지속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며 최종확정이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도·농 연계 협력으로 도시 일자리 부족과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한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도농 협력 일자리연계 사업’은 농업인과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인력중개를 위한 전담 상담원을 두고, 일자리 참여자에게 숙박·교통·보험 등의 편의를 지원한다.

○ 현재 6개 지역행복생활권의 16개 시·군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농번기 일자리 연계서비스 개시 : 거창·함양·산청(1월~), 임실·순창·남원(4월~), 나주·화순(4월~), 담양·구례·곡성(6월~), 단양·제천(6월~), 합천·밀양·창녕(사업 준비)

□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5백여 농가와 1천 4백여 명의 구직자 DB를 갖추고 있고, 2만 5천여 건의 일자리 중개를 성사시켜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도시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15.1.1.~10.13. 일자리 중개 실적 : 25,105건

○ 또한, 농산업 구인·구직 연계 정보시스템(www.agriwork.kr)을 운영(5월~)하여 지역의 농번기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워크넷·사람인 등 외부 채용정보와 연계하여 농산업분야의 상시채용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농식품부는 16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농번기에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구직자 일자리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연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그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농번기 인력수요를 조사한 후, 도시의 구직자 일자리지원기관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지자체와 연계시켜 주고 있다.

○ 우선 서울시 소재 구직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 센터와의 협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시인력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구인 농가를 모집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면,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은퇴자 및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농촌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지자체까지 인솔한다.

□ 도시인력을 활용한 제1차 도농일자리 연계사업은 9월 농식품부 주관으로 서울시인생이모작센터와 단양군, 나주시간 협업으로 시행되었다.

○ 나주시와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간 협업은 9월 8일부터 14일 까지(7일간) 60대 전후 남성 9명이 배 수확 및 선별, 운반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고, 단양군과의 협업은 9월 10일부터 21일까지(12일간) 사과 수확 및 포장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 제1차 협업사업에 참여한 구직자와 농가 모두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인력의 작업능력 및 숙련도 검증, 적정수준의 임금 제공 등 다소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다면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 현재 농식품부는 도시인력을 활용한 제2차 도농일자리 연계 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성군, 임실군, 구례군, 단양군, 밀양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 제1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사과 수확(의성군), 시설채소 수확(임실군), 단감 및 산수유 수확(구례군), 황기 수확 및 운반(단양군), 사과 수확(밀양시) 등의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 제2차 협업에서도 인력으로 참여한 도시민들에게 교통, 숙식, 상해

보험가입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초보 작업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수준에 따른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제1차 협업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실시하는 도농협력 일자리연계 사업을 통해 구인 농가와 대도시권 구직자간 인력 매칭체계를 만들어 농가에는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도시권 구직자에게는 일자리와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농상생의 성공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도·농 일자리 연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같은 도시의 일자리 지원기관을 추가로 발굴하여, 도시인력을 원하는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확대, 축산업 허가기준 보완 등 축산법 시행령 개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 구체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 '15.10.13, 시행 : '16.4.13, '16.10.13)하였다고 밝혔다.

○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가 현황파악 및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가금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펭)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과 적정사육기준을 강화하였다.

- 종계장·종오리장, 부화장,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
으며,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 기준(붙임)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다.

* 전실 : 기후에 관계없이 대안·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
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분,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평사*) 1제곱미터 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강화하였습니다.

* 평사 : 바닥에 만든 닭장

□ 이 영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 면적 10㎡이상 15㎡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는 '16.4.13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을 시·군·구에 등록하고,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16.10.13일까지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게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축산법 제56조제1항),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축산법 제25조제4항, 영별표4)가 부과된다.

* 위반 :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200만원

** 위반 :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축산법 시행령>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TPP 타결에 따른 일본 쌀 시장 전망

- 일본은 TPP 타결에 따라 무관세 쌀 수입물량을 설정함.
- 일본은 TPP 협상 최대의 초점이었던 주식용 쌀을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최대 7만8400톤 무관세 수입물량 설정에 합의함.
- 1993년 GATT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로 설정된 수입물량은 77만 톤으로, TPP 타결로 일본 국내 수입 외국산 쌀이 10%가량 증가하는 상황임.
- 2014년 일본의 쌀 수요량은 음식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20년 전 대비 약 20% 감소한 778만 톤이며, 매년 평균 8만 톤 정도씩 감소하고 있음. 쌀 가격 또한 하락세로 2014년 기준 60kg당 최저 1만 2000엔 정도임.
- 수입물량은 수입상사와 쌀 도매상이 파트너를 이루는 신청판매동시입찰(SBS)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임. 신청판매동시입찰이란 상사의 정부 판매가격과 유통업체의 정부로부터 구입가격차이가 큰 물량부터 낙찰되는 방식임.
- 일본은 현재 연간 77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최저수입의무(Minimum Access, MA)를 수입하며, 주식용은 10만 톤 상한의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으로 민간에 판매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은 TPP 타결에 따른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 운영 시, 낙찰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는 입찰빈도를 늘려 3년 중 2년 간 할당범위 내에서 거래가 모두 이뤄지지 않는 경우, 차기년도의 입찰차액을 일시적으로 15% 하향조정하는 방식임.
- 2014년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 하에서 주식용 미국산 쌀의 판매 가격은 179엔/kg, 일본산 쌀은 202엔/kg이며, 현재 가격차이에서는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 단,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의 입찰차액제도 운용에 따라 업무용 수입산 쌀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일본 정부는 국내산 쌀 추가 비축 방향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지난 10월 10일 모리야마 농림수산대신은 약 7만 톤 무관세 수입 허용에 따라 국내산 쌀 추가 비축 방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수입 증가분만큼 정부의 추가 쌀 구입으로 수급정도를 유지할 예정으로, 쌀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이전처럼 쌀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정부매입방식을 취한다면, 수입산 쌀과 경쟁하는 업무용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현재 일본 정부는 약 100만 톤을 적정재고로 비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20만 톤 이상을 비축용으로 구입함. 구입 후 5년이 경과된 쌀은

사료로 방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TPP 발효 후에는 구입량을 30만 톤 이상으로 늘리고 사료로 방출하기까지의 기간도 단축시킬 예정임.
- 수입산 쌀 무관세 수입물량설정의 파급효과를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임. 수입산 쌀 거래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 운용방향과 정부의 국내산 쌀 비축방식에 따라 일본 농업에 악영향만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쌀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가장 중요한 협상 부문으로, 한국 또한 TPP 참여를 검토 중인 현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쌀 수입 관련 대응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쇠고기 소비 감소 추세

- 미국인들의 식탁에서 쇠고기가 사라지고 대신 저렴한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식탁을 점령함 -
-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미국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올해 53.9파운드(약 24.45kg)이며,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에 따르면 생우 선물가격은 쇠고기 수요약세 전망에 따라 지난 3분기기준 12%가 하락하였음. 동 수치는 2008년 경제침체이후 분기 기준 최대 하락폭임.

- 크리스토퍼 나라야난 농산물조사책임자에 따르면 쇠고기 판매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으며, 핵심원인은 가격으로 사람들이 쇠고기 이외에 대안 식재료를 찾고 있다고 함.
- USDA에 따르면 쇠고기 소매가는 지난 8월 현재 파운드당 7.91달러로 지난 7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7.96달러와 불과 1%이내의 가격차를 보임. 또한 돼지고기 소매가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신고가 대비 7% 이상 하락함.
- 전문가들은 이러한 쇠고기의 높은 가격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쇠고기 도매가는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9월 들어 14% 하락하였는데, 이는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수치임. 쇠고기 도매가가 하락으로 슈퍼마켓의 쇠고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가 다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월 소이어 라보뱅크 부사장은 돼지고기 가격도 현재보다 하락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최근 추진하는 미국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실현될 경우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시장에 보다 많은 자국산 돼지고기가 풀릴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올해 들어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 중인 닭고기로 인해 돼지고기 수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지난해 쇠고기 가격과 돼지고기 가격은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계기로 급등하였음.
- 당시 가뭄뿐만 아니라 설사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새끼 돼지들을 잇달아 폐사시킨 결과, 미국의 가축수가 60여년 만에 최저치까지 감소하였음.
-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경기침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쇠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반면에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으나, 경기침체나 타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쇠고기 대체제의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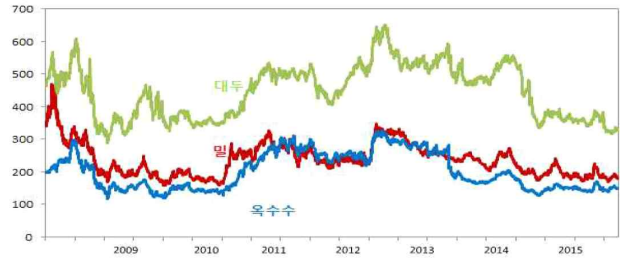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0. 26.(시카고 선물거래소)

기술적 판매 및 달러화 강세로 밀 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0.23)	전일대비	전월평균 ('15.9)	2014 평균
밀	180.19	-	179	216
옥수수	149.44	▲0.4%	147	164
대두	329.00	▼0.4%	324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기술 매매와 달러 상승으로 소폭 하락 마감함. 더불어 지난 이틀 동안 폭풍이 미국 남부 평원 및 지대의 마른 부분에 발아 및 파종을 돕는 필요한 비를 뿌렸고, 달러화 강세와 흑해 및 남미 지역의 값싼 밀 공급으로 수출 경쟁력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다른 곡물 가격의 하락세 속에서 11월 옵션 연장과 투자자들의 숏커버링 전략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함. 하지만 달러화 강세로 세계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을 많이 잃은 상태이며 수확 진행 상태는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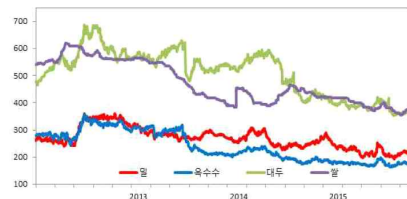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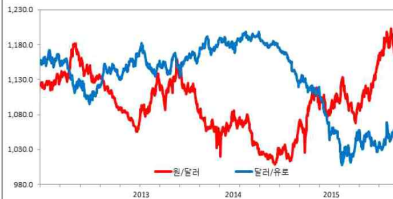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와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중국의 구매력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함. 허리케인 패트리샤는 미국 중서부 전역으로 확장 이동하고 있어 최종 수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관련동향 ○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석유 초과공급 지속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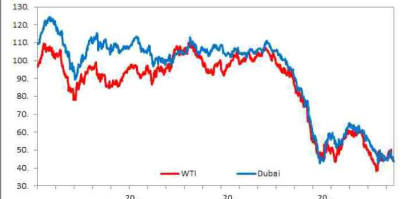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14	환율	원/달러	▲0.6%
	옥수수	177		달러/유로	▼2.1%
	대두	367	국제유가 (US\$/B)	WTI	▼1.7%
	쌀	373		Dubai	▲0.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0.21(수출가격), '15.10.23(환율), '15.10.2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국제곡물 이사회의 곡물수출가격 데이터는 입전되지 않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달달함 따라 떠나는 10월 과수축제

- 축 제 명 : 2015 제14회 창원단감축제
- 기 간 : 2015. 10. 31.~11. 1.
- 장 소 : 경남 창원시 북면 온천 관광단지
- 문 의 처 : 055-255-3995

- 축 제 명 : 2015 충주 농산물한마당 축제
- 기 간 : 2015. 10. 31.~11. 1.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 주요행사 : 농악대 퍼포먼스, 서커스 공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노래자랑 등
- 문 의 처 : 충주사과발전회 043-850-5721

- 축 제 명 : 화순고인돌 문화축제
- 기 간 : 2015. 10. 31.~11. 1.
- 장 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 주요행사
 - 고인돌 끌기 한마당 행사, 고인돌마을 제례의식, 선사생활 체험장 운영, 주민참여 공연전시, 사생대회, 사진전시 등
- 문 의 처 : 도곡면 061-379-5070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원산지 표시

어떤 품목이 **추가** 되나요?

표시방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 **대상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대상 품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품목으로 4개품목이 추가되고, 3개 품목은 표시가 확대됩니다.

현행품목	추가품목	표시확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 **표시방법**

1.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 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글자크기	음식명 1/2이상	음식명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표시위치	규정 없음	음식명 옆 또는 밑에 표시
배추김치	배추만 표시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혼합표시	규정 없음	섞음비율이 높은순으로 표시 표시의 예) 갈비탕(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 호주산이 국내산 한우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합니다.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한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세로 : 21cm × 29cm 이상,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입니다.

3.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표시대상 모든 품목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가공되는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는 현재는 사용된 원료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예시)

글자 크기 및 위치

기 준

- 글자 크기 : 음식명 글자의 1/2
- 표시 위치 : 규정 없음

메뉴판	
돼지갈비(국내산)	8,000원
삼 겹 살(덴마크산)	8,000원
삼 계 탕(국내산)	8,000원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쌀은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개 정

- 글자 크기 : 음식명 글자 크기 이상
- 표시 위치 : 음식명 바로 옆 또는 하단

메뉴판	
돼지갈비(국내산)	8,000원
삼 겹 살(덴마크산)	8,000원
삼 계 탕(국내산)	8,000원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쌀은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원산지 표시판

원산지 표시판	
돼지갈비	(국내산)
삼 겹 살	(덴마크산)
삼 계 탕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21cm 또는 29cm 이상

21cm 또는 29cm 이상

30P 이상

냉장고, 식자재 보관 창고 등 일괄표시 방법

기 준

축산물만 표시

품 명	원 산 지
돼지갈비	국내산
삼겹살	덴마크산
쇠고기	국내산 한우

개 정

음식점 표시대상 모든 품목

품 명	원 산 지
돼지갈비	국내산
삼겹살	덴마크산
쇠고기	국내산 한우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쌀	국내산
갈치	국내산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거짓표시

■ 원산지 대상품목에 대하여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 할 수 있습니다.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회이상 위반 시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개

● 원산지 미표시

■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 미표시 위반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	60	100
(4)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 김치에 들어 있는 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각 30	품목별 각 60	품목별 각 100
(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각 30	품목별 각 60	품목별 각 100
(6)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0	40	80
(7)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전화 : 1588-8112





주간

전남농업정보 57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